

1/25(화) 출애굽기 29-32장 두려움과 정결함으로

출애굽과 시내산 언약, 성막 도안과 제사.
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었습니다.
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들은
이제 성막(제사)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그러나 이스라엘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.
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지만,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닙니다.
성막은 터로부터 커튼, 휘장 등을 통해 철저히 <구별> 됩니다(26-27장).
레위인이 성막을 지키고 유지, 보수하며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(민1:51,53).
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의복과 매무새로부터(28장),
마음가짐(28:36), 속죄와 정결(29:1-37)등으로 성별 되게 세워져야 합니다.

<두려움과 정결함으로 나아오라>는 지침을 내리시던 순간에,
이스라엘은 실로 최악의 반역, <큰 죄>를 저질렀습니다(32:21).
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을 <금송아지>로 대체한 것입니다(32장).
<창조주 하나님>을 <피조물>로 만들어낸 것입니다(창3).

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.
그나마 눈앞에서 진두지휘하던 모세도 못 본 지가 40일입니다.
그들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신을 바랐습니다.
공허와 필요를 즉석에서 채워줄 신을 바랐습니다.
결국 이 일로 삼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.

<하나님과 함께 한다>는 것의 무거움을 기억해야 합니다.
정결함으로 <여호와의 편>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(32:26).
아론은 백성들을 평계 대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(창3:12,9:25,17:5).
반면, 모세는 아론과 백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중보 합니다(32:30-35).

본문을 통독하며 묵상해 보십시오. 나는 <하나님과 함께 한다>는 것의 무거움을 깨닫습니까?

- ❶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방패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?
- ❷ 친밀함을 혼동하여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?